

여러분의  
소중한 전자책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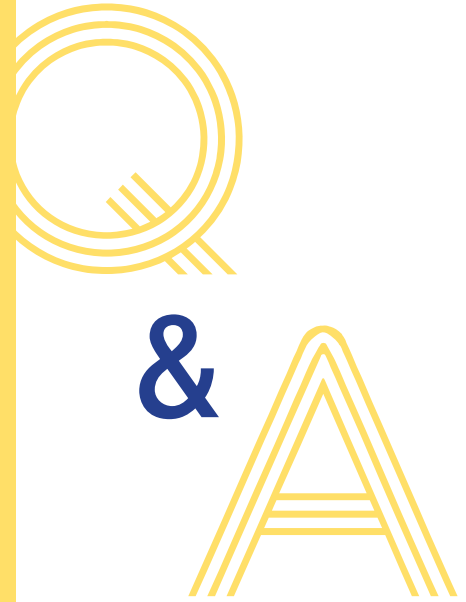
국립중앙도서관에서  
모으고 보존하여

후대에  
전승합니다.

납본이란,

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발행(제작)한 자가 발행(제작)한 자료를  
**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**하는 제도입니다.

전자책 납본  
초보자를 위한



## Q1

전자책을 출판하면  
무조건 납본해야 하나요?

네.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를 부여받은 전자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합니다.  
※ 근거 : 도서관법 제20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

## Q3

전자책 납본 파일의  
외부 유출 위험은 없나요?

국립중앙도서관은 방화벽 구축과 함께 전자책 납본 파일의 외부 유출 및 불법 복제 등의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(DRM) 기반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특히 보존용 파일은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최신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환경 속에서 철저히 관리, 보존하고 있습니다.

## Q5

납본한 전자책을  
집에서도 볼 수 있나요?

납본한 전자책은 외부에서 볼 수 없습니다. 국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고, 저작권법에 따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도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인쇄 및 저장, 화면 캡처는 모두 불가능합니다.

## Q2

전자책에 대한 납본 제외  
기준이 있나요?

전자책이지만 일반적인 책의 형태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자료, 이미 공개된 내용을 편집한 자료, 단순 스캔자료 등은 납본 제외 자료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. '납본 제외 자료'는 국립중앙도서관 ISBN·ISSN·납본시스템(<http://nl.go.kr/seoji>) > 온라인 자료 납본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Q4

전자책 납본 절차가  
어렵지 않나요?

전자책 납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- ① 국립중앙도서관 ISBN·ISSN·납본시스템(<http://nl.go.kr/seoji>)에 전자책 파일을 업로드
- ② 대량 납본은 전자책 파일과 서지정보를 저장매체(USB, 외장하드 등)에 담아 송부

※ 판매용 전자책은 열람용 1부에 대한 정가를 납본 보상금으로 지급하오니, 관련 서류(납본서·보상청구서, 전자계산서)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국립중앙도서관  
전자책 납본 이야기



소중한 지식문화유산을 모아  
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,  
납본에서 시작됩니다.

E-BOOK +  
HISTORY



# 당신의 전자책은 소중합니다.



\*자세한 '전자책 납본 방법'은 <전자책 납본 가이드> 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
## 전자책 납본 가이드

납본대상

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를 부여받은 전자책

납본방법

1, 2 중 택일

1 파일 업로드 2 저장매체(CD, DVD 등)  
에 담아 송부



자료이용



관내이용

·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 
이용



이용범위

· 열람만 가능  
· 인쇄, 저장, 화면 캡처 불가



USER 수

· 동시 접속자 수 1명



보안

· 방화벽 구축  
· 관내 전용 뷰어 개발  
· DRM(디지털 저작권 관리  
시스템) 적용

납본문의



전화 02-590-0700, 내선 3번 - 전자책 6번

이메일 onsuji2020@korea.kr

주소 (06579)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전자책 납본 담당자

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ISBN·ISSN·납본시스템 → 전자책 납본 → 온라인 자료 납본 안내

팩스 02-590-0672